

범안로 예산 85억원 살아날까

시의회 오늘부터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

대구시의회는 11일부터 예결특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85억원) △도시디자인 연구용역비(9억원) 등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부분 삭감된 각종 예산들이 되살아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범안로 재정지원금 심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작년 이맘때 2006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올해 재정지원금 85억원 가운데 35억원을 삭감한 적이 있다. 당시 대구시가 민간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기일(6월말)을 넘겨

9월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 반영시킴으로써 가산금 3천 100만원까지 물고 결과적으로 재정손실을 가져온 전례가 있다.

현재 범안로를 이용하는 자산~범물 주민들의 무료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이동희·이경호·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범안로 일부를 시 재정상업으로 돌려 사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재정형편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의 재정지원금이 예결위 심사에서도 삭감될 경우 내년 추경에서 다시 반영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자와의 계약파기에 따른

소송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지난 8일 예비심사에서 건설환경위원회는 김범일 시장의 공약인 도시디자인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22개 항목을 전액 삭감했다.

경제교통위원회도 같은 날 심사에서 △EXCO 주변지하도 건설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0억여 원 △동대구벤처센터 건립비 5억원 △성서산업단지내 기업체 공원화사업 5억원 △경북통상(주) 출자금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및 버스정보시스템유지비(500억원) 50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대구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건립

비 6억6천100만원 △EXCO주변 지하도건설(민간자본보조) 9억2천500만원 △스타기업 100육성계획추진비 317만6천원 등은 당초 편성안에는 없었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반영됐다.

예결특위(위원장 박돈규·달서구1)는 첫날인 11일 건설환경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12일 교육사회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뒤 13일 '2007년도 대구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다.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4일 마무리된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